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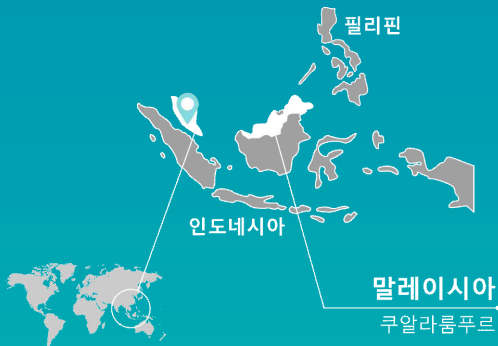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말레이시아

Federation of Malaysia

2023년 10월 31일 | 선임조사역(G2) 이진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30천 km ² 	인구 3,265만 명 (2022)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연방형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4,070억 달러 (2022) 	1인당GDP 12,466달러 (2022) 	통화단위 Ringgit 	환율(U\$기준) 4.40 (2022) 

-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된 연방제 입헌 군주국으로서, 그 중 11개 주와 2개 연방 직할구는 말레이 반도 남부(서말레이시아)에 위치하며, 2개 주와 1개 연방 직할구는 보르네오 섬 북서부(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음.
- 말레이계 및 원주민(부미푸트라) 69.9%, 중국계 22.8%, 인도계 6.6%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2022년 기준) 되어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말레이 원주민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해 왔음.
-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팜오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상위 중소득국이며 금융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하여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음. 이에 더해 기업친화적인 제도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기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왔음.
- 2022년 11월 조기 총선을 통해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제10대 말레이시아 총리직에 취임 하였으며, 부패 스캔들, 여·야 간 합종연횡 및 이합집산으로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0. 2. 23 수교 (북한과는 1973. 7. 2)

주요협정 무역협정('62), 항공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83), 과학기술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89), 자원협력양해각서('95), 형사사법공조조약('13), 범죄인인도조약('13),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2)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 출	9,078,150	10,107,328	11,473,480	반도체, 석유제품, 합성고무 등
수 입	8,892,564	10,456,180	15,249,061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034건, 7,176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4.4	-5.5	3.3	8.7	4.0
소비자물가상승률	0.7	-1.1	2.5	3.4	2.9
재정수지/GDP	-2.0	-4.9	-5.8	-5.9	-4.7

자료: IMF, EIU

2023년 경제성장률은 높은 기준금리,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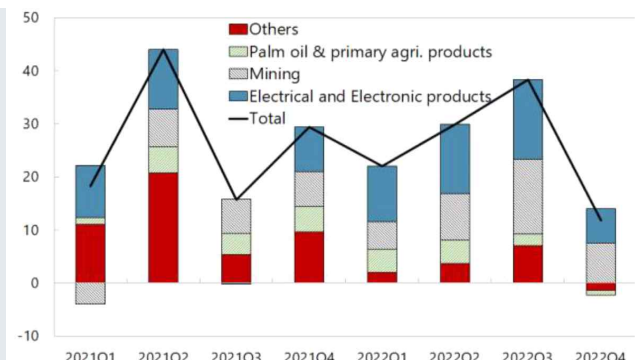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는 광물자원(원유, 천연가스, 주석), 농산자원(팜오일, 고무) 등 천연자원 부국으로서 동남아 지역 석유·가스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도로·공항·항만·인터넷 등 발달된 인프라와 풍부한 영어 구사 인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전기·전자 등 제조업 육성 등을 통해 장기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음.
- 1980년대 초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본받고자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수립하고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제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결과, 1980년대(1981~1990년) 및 1990년대(1991~200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각각 6.1%, 7.2%에 이를 정도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5.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백신 접종률 증가 및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2021년 중 3.3%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22년 민간 투자·소비 회복, 전기·전자제품, 원유 및 팜유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8.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정책이 외부수요 약화로 이어지면서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EIU).

[그림 1] 말레이시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IU

[그림 2] 말레이시아 수출의 상품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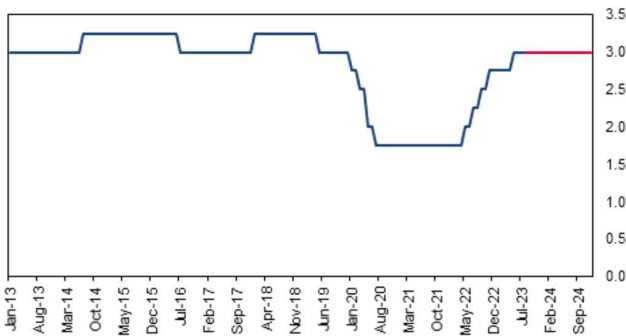
자료: IMF

국내경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2022~23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125bp 인상(1.75% → 3.0%)

-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2012~21년) 평균 1.79%(IMF)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에 따라 생산 중단과 민간 수요 감소 등을 경험한 2020년에는 -1.1%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하반기 봉쇄조치 완화 및 이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를 기록하였음.
-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링깃화 평가절하, 전반적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면서 3.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22~23년 중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본격화된 글로벌 물가상승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차례(2022년 5·7·9·11월 및 2023년 5월) 125bp를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9%(IMF)으로 전년 대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높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itch는 BNM이 링깃화 평가절하 대응 등을 위해 현행 기준금리(3.0%)를 2024년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BMI(Fitch)

[그림 4] 말레이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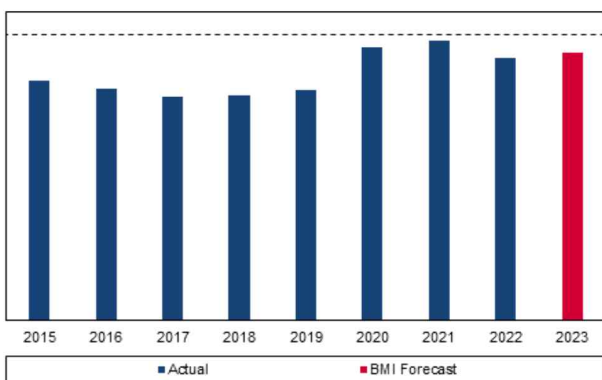
자료: EIU

국내경제

경기부양책 확대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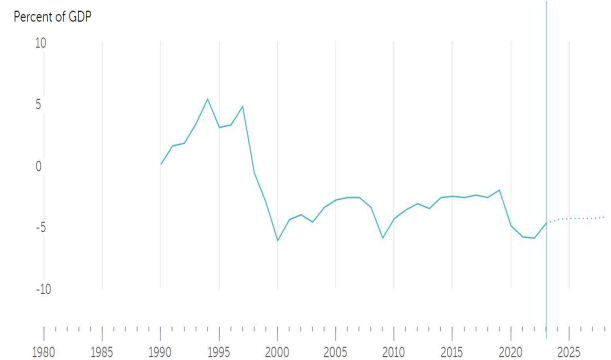
- 2020년 말레이시아의 재정수입은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이 장기간 지속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유 수출 수익 등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9%로 전년(-2.0%) 대비 악화됨.
- 2021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2.0%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더 악화되었으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65.6%(IMF)를 기록하였음.
-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와 하원은 2020년 8월 및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상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상한을 종전 55%에서 각각 60%, 65%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재무부 차관은 "긴급유동성 자금을 제외한 실질적 정부부채는 1.2조 링깃으로 GDP의 61% 수준"이라며 당분간 공공부채 비율 상한을 65% 이내에서 관리할 것을 시사한 바 있음.
- 2022년 원유 및 가스 가격 상승,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기업 Petronas의 정부 배당금(50억 링깃) 증가(전년 대비 약 2배), 법인세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상승한 식품 및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출 규모 등도 같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5.9%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별소비세 도입,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규모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세율 혜택, 식품 및 연료 보조금 지원 등으로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된 GDP 대비 -4.7%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9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2022년 정부지출의 약 17.4%(약 115억 달러)를 차지한 연료 보조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편(2024년 1월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개편으로 인한 예산 절감분은 2023년 7월 발표한 국민 경제 증진 프레임워크인 EKONOMI MADANI의 이행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됨(EIU).

[그림 5] 말레이시아 정부부채 추이(% of GDP)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BMI(Fitch)

[그림 6] 말레이시아 재정수지 추이(% of GDP)



자료: 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상 수 지	12,795	14,138	14,493	12,271	7,796
경상수지/GDP	3.5	4.2	3.9	3.0	1.8
상 품 수 지	30,123	32,829	42,814	42,162	32,912
상 품 수 출	197,272	186,062	242,590	281,174	240,792
상 품 수 입	167,150	153,233	199,776	239,011	207,880
외 환 보 유 액	99,467	102,642	107,184	105,250	104,260
총 외 채	193,675	214,553	237,261	230,257	247,557
총외채잔액/GDP	53.0	63.6	63.5	56.6	57.5
D.S.R.	10.9	13.6	10.5	9.7	11.5

자료: IMF, EIU

다변화된 수출품목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 대외거래를 위한 운송비 지출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전기·전자제품, 원유, 천연가스, 팜유, 천연고무 등 다변화된 수출 품목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매년 안정적인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 힘입어 경상수지는 1998년부터 매년 흑자를 지속해 왔음.
-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전년 대비 증가액(565억 달러)이 상품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액(465억 달러)을 약 100억 달러 초과하며 428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 및 145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22년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출액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재개 등의 긍정적 요인들이 있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0%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2023년에는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이 기대되나, 고금리 기조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외부수요 약화에 따른 상품 수출 약세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7%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Mood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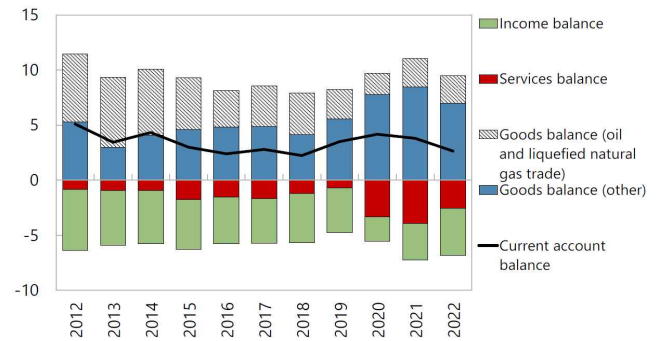
대외거래

[표 1] 말레이시아의 연간 경상수지 추이(억 달러)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상 품 수 지	301	328	428	422	329
서 비 스 수 지	-26	-112	-158	-129	-110
본원소득수지	-95	-68	-102	-136	-97
이전소득수지	-52	-7	-23	-34	-44
경 상 수 지	128	141	145	123	78

자료: IMF, EIU

[그림 7] 말레이시아의 경상수지 추이(%)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외채구조와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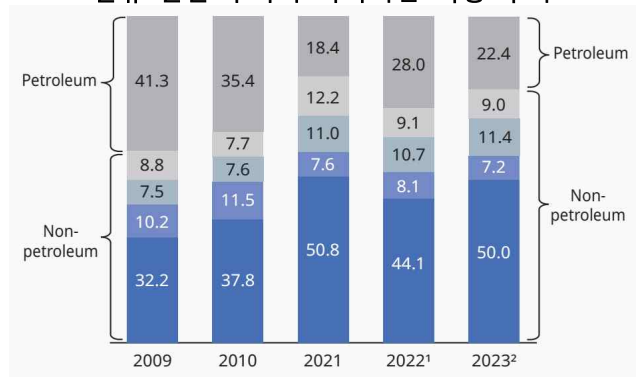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0년 63.6%, 2021년 63.5%, 2022년 56.6%를 각각 기록하였음(OECD). 총외채잔액의 65% 이상이 중장기 채무로 만기구조가 안정적이며, 공공외채의 90%가 현지통화 표시 부채로서 외부충격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IMF).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GDP 규모가 감소(3,652억 달러 → 3,375억 달러)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차입이 증가한 결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전년(53.0%)보다 10.6%p나 급등한 63.6%로 상승함.
- 한편, 2022년 단기외채잔액은 외환보유액 확보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링깃화 평가절하 부담 등으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4.0개월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안정화, 20년 넘게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개선세 등은 향후 외환보유액 증가 및 외채상환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 57.6(2019) → 65.4(2020) → 70.3(2021) → 76.2(2022)
 -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억 달러) : 78(2019) → 32(2020) → 122(2021) → 169(2022)
 -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개월) : 5.1(2019) → 6.0(2020) → 4.8(2021) → 4.0(2022)
- D.S.R.지표는 2020년 차입 증가로 전년(10.9%)보다 2.7%p 상승한 13.6%를 기록하였으나, 2021~22년에는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하락하였음. 한편, 2023년에는 높은 기준금리에 따른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D.S.R.이 전년 대비 상승하여 1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 276.1(2019) → 299.2(2020) → 300.3(2021) → 324.0(2022) → 324.0(2023^f)

구조적취약성

원유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말레이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으로,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이 경상수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재정수입의 약 20%를 원유 관련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여력을 좌우함.
- 국제유가의 등락은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직접세(direct tax) 확충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다변화하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림 8] 말레이시아의 재정수입에서 원유 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인근 ASEAN 경쟁국 대비 작은 내수시장 규모

-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적어(3,430만 명) 경제규모 확대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으며, 특히 ASEAN-5 국가(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중 인구가 가장 적어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23년 인구 전망치(U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2.8억 명), 필리핀(1.2억 명), 베트남(1억 명), 태국(7천만 명) 등 인근 주요국들의 인구 규모는 말레이시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또한, GDP 대비 무역 비중(세계은행, 2021년)*도 인근 주요국 대비 높은 편에 속하며, 세계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높은 반도체 및 IT 관련 제품과 광물자원 등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130.5%, 인도네시아 40.5%, 필리핀 63.5%, 베트남 186.5%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높은 수출입 의존도

- 말레이시아 통계청 'Top10 Trading Partners, 2022'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5개국(싱가포르 15.0%, 중국 13.6%, 미국 10.8%, 일본 6.3%, 홍콩 6.2%)에 대한 수출 비중이 50%가 넘고, 주요 수입 5개국(중국 21.3%, 싱가포르 10.5%, 대만 8.2%, 미국 7.7%, 일본 6.4%)의 수입의존도가 50%가 넘음. 또한, 중국 등 주요국은 수출 및 수입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국토의 5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천연고무(세계 7위)와 팜유(2위)가 풍부하게 생산되어 세계 주요 수출국임. 또한, 원유, 천연가스, 주석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여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함.
-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팜유(palm oil)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팜유 수출량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2위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팜유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3년 4월 유럽의회가 삼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EU)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삼림 벌채 방지법(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을 최종 채택함에 따라 법안 발효 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임. 이에 팜유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EUDR를 '매우 해로운 차별적' 조치로 정의하고 팜유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음.
- * 총 7개 농산품(소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과 이를 사용해 생산된 파생상품.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2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順)의 산유국이자 세계 5위의 LNG 수출국(2022년 카타르-호주-미국-러시아 順)이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심해 프로젝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에 매장된 원유는 고급유로 평가되는데, Sabah 및 Sarawak 지역의 해저유전에서 생산되는 'Tapis' 원유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원유로 거래됨.
- * Tapis 원유 가격은 벤치마크 원유인 브렌트유나 WTI(서부텍사스중질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이는 Tapis 원유가 브렌트유나 WTI보다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고급 경질유이기 때문임.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 보유

-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2년 기준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상품수출액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이 주요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팜유, 천연고무 등 농업 부문의 생산과 수출 경쟁력도 양호함. 아울러 원유, 주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광업도 발전하여 전 산업 부문에 걸쳐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 * 2022년 GDP 구성 비중(EIU): 서비스업 57.8%, 제조업 23.9%, 농업 6.5%, 광업 6.3% 등

정책성과

EKONOMI MADANI : 2023년 7월 말레이시아 경제 프레임워크 발표

- EKONOMI MADANI(이코노미 마다니)는 2023년 7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제시한 말레이시아 경제 프레임워크로 세계 30위 경제대국 진입, 글로벌 경쟁력 지수 상위 12위 내 진입 등 향후 10년 이내 달성을 위한 7대 중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New Industrial Masterplan 2030, Mid-Term Review of the 12th Malaysia Plan의 기본 토대가 될 예정임.
- MADANI는 6대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번영(Prosperity), 혁신(Innovation), 존중(Respect), 신뢰(Trust), 연대(Care and Compassion)의 말레이어 약어임
- 말레이시아는 1970~90년 신경제정책(NEP), 1991~2000년 국가개발정책(NDP), 2001~10년 국가비전정책(NVP), 2011~20년 경제변화프로그램(ETP) 등 정부 주도의 10년 주기(장기) 및 5년 주기(중기) 경제계획 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음. 이를 통해 자원 수출과 농업 생산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전기·전자 산업과 함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바 있음.
- 그러나 1978년 세계은행 분류 중소득 국가에 편입된 이후 50년 넘게 중소득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경쟁력 저하, 성장동력 부족 등의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EKONOMI MADANI 7대 중간 목표 (10년 이내 달성)

1. 말레이시아 세계 30대 경제대국 진입 (Malaysia ranked among the Top 30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2. 글로벌경쟁력지수 세계 상위 12위 내 진입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anks in the top 12 in the world)
3. 전체 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율 45% 달성(The percentage of labour share of income reaches 45% of the total income(note : the 12th Malaysia Plan target is 40% by 2025))
4.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60%까지 제고(Increase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to 60%)
5. 인간개발지수 세계 상위 25위 내 진입(The Human Development Index ranks within the top 25 in the world)
6. 부패인식지수 상위 25위 내 진입(Improve Malaysia's position in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o Top 25)
7. 재정적자 비율 3% 이하 유지, 지속가능성 지향(Towards fiscal sustainability, targeting a deficit of 3%, or lower)

자료: EKONOMI MADANI : MEMPERKASA RAKYAT

기업친화적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여건 양호

- 말레이시아의 사법 제도는 영국 보통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고 국제투자 분쟁조정기구(ICSID)를 통한 국제분쟁 조정을 허용하는 등 상업 문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됨. 정부가 외국인 자산을 몰수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장기간 지속하여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기업경영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기업의 자금 조달,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등 제반 기업경영여건이 양호하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2위로 매우 양호함.

정치안정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취임, 재임기간(2023~27년) 중 정치적 안정 기대

-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의 유산으로 국왕과 더불어 상·하원 양원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이자 연방 의회와 주 의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연방제 국가임. 국가원수로서 왕의 임기는 5년이며 9개 주의 술탄(Sultan)이 교대로 선출되고, 형식적으로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서 통솔권을 가지고 있음.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은 상원(임기 3년)은 총 70명으로 구성되며, 26명은 13개의 주 의회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44명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국왕이 임명함. 하원(임기 5년)은 소선거구제 형태로 전국적으로 222명을 선출하며, 원내 다수당(연합)의 당수가 총리로서 실권을 행사함.
- 통합말레이국민조직당(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 중심의 다수 정당 연합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은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1957년부터 2018년까지 60년이 넘게 장기집권을 유지해 왔음. 특히,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마하티르) 총리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22년 간 UMNO의 대표로서 최장기 집권하면서 1988년부터 10여년 간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과 IMF의 긴축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음.
- 마하티르 총리는 2003년 퇴임 후에도 UMNO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 2015년 전후에 불거진 나집 라작 당시 총리의 1MDB 부패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당에서 축출되었음. 이에 그는 통일원주민당(PPBM)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행동당(DAP), 인민정의당(PKR) 등과 손잡고 야권 연대인 희망연대(PH)를 구성, 2018년 총선에서 본인이 과거 총리로서 이끌었던 BN을 큰 표 차이(PH 113석, BN 79석)로 따돌리고 61년만에 정권을 교체하였음.
- * 나집 라작 전 총리가 2009년 설립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의 조성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세탁 및 횡령 사건. 미국 법무부는 국내 자금세탁 관련 수사에서 나집 전 총리가 45억 달러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1MDB에서 유출된 자금 가운데 7억 달러 상당이 나집 전 총리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면서 나집 전 총리에 대해 40여개 혐의로 기소하고 5건의 재판에 회부하였음. 2022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그 중 1건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2억 1천만 링깃(46백만 달러 상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나집 전 총리를 법정 구속하였음.
- 집권 3년 차인 2020년에 PH 소속의 PKR당 대표에게 총리직을 양보하기로 한 마하티르는 당시 야당 연합인 BN 등과 손잡고 새로운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새롭게 총리에 오르려는 의도로 돌연 총리직을 사임함. 한편 혼란스러운 이합집산, 합종연횡의 정국 속에서 마하티르와 함께 PPBM을 창당한 무히딘 야신은 PPBM을 PH로부터 탈퇴시킨 후 UMNO 및 BN 세력과 손잡고 국민연합(PN)을 구성하여 총리에 오르게 됨.
- 그러나 야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임에 따라 민심이 이반되고, 내각의 대다수를 PPBM 출신만으로 구성함으로써 UMNO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잃게 되자 2021년 8월 총리직을 사임함. 야신 전 총리 집권 당시 국방장관 및 부총리 중 하나였던 UMNO 소속 이스마일 야콥은 당내 경쟁에서 승리하고 BN 소속 의원 포함 총 114석을 확보하여 총리에 오르게 됨. 이와 함께 소속 정당인 UMNO는 2018년 총선 패배 후 3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으로 복귀하였음.

정치안정

- 그러나 당시 여당 연합의 집권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기 총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2022년 10월 10일 이스마일 야콥 총리는 조기 총선을 위해 의회를 해산한다고 밝혔으며, 2023년 7월로 예정되었던 총선이 2022년 11월 19일에 치러지게 됨.
- 2022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인민정의당(PKR, Parti Keadilan Rakyat) 총재가 이끄는 PH가 승리하면서 안와르 이브라힘이 제10대 총리에 취임하여 정권이 다시 교체되었으며, EIU는 현재의 연대가 지속되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임기(2023년~27년) 중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EIU에서 평가한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지수(2022년)는 167개국 중 40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대만, 호주, 한국, 일본(이상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평가점수(7.30점/10점)상으로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었으며, 선거 절차(9.58점), 정부 기능(7.86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 문화(6.25), 시민의 자유도(5.59)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동티모르(44위), 인도(46위), 필리핀(52위), 인도네시아(54위), 몽골(66위), 싱가포르(70위) 順

** 선거 절차,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

사회안정

부미푸트라(말레이계 및 원주민)에 대한 우대정책 지속

-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통칭하는 부미푸트라(69.9%)와 중국계(22.8%) 및 인도계(6.6%) 이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음.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중국계가 경제를 장악하여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음.
- 1969년 5월 10일 총선에서 말레이계·인도계·중국계 기반 민족정당 3당이 연합한 여당연합이 부진한 성과를 내자 그간 누적된 민족 간 갈등이 표출되며 말레이계와 중국계 주민 간 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5월 13일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당시 총리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듬해 사임하였으며, 정부는 말레이계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것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1971년부터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을 실시해 왔음.
-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은 대학교 입학 특별전형 실시 및 학비 할인, 기업이나 관공서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부미푸트라 직원 고용 의무, 기업 상장 시 지분의 12.5% 이상을 부미푸트라 투자자에 할당, 택지 개발 시 입주 물량의 30% 부미푸트라 앞 할당 및 특별 할인 제공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부미푸트라에 특혜를 주고 있음. 이러한 우대정책은 말레이계의 교육과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있음.
- 인도계와 중국계 주민들은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이 도입되던 때에 비해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는데도 우대정책이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반면, 일부 말레이계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임. 2018년 정부가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UN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비준을 준비하고 부미푸트라 우대정책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져 ICERD 비준이 무산된 바 있음.
-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Bumiputera Prosperity Council)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공동번영 비전 2030'의 일부로, 부미푸트라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예방조치 지속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6년 6월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쿠알라룸푸르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 사건(8명 부상) 이후 IS 관련자들에 대한 관리 및 체포 활동을 지속하는 등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테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그 뒤 추가적인 테러 사건은 발생한 바 없음.
- 말레이시아 경찰은 2019년 7~9월 중 IS의 영향을 받아 정치인 등을 상대로 테러를 계획한 16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체포한 바 있으며, 정부는 IS 가입을 목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되는 100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 경찰은 2020년 1월 IS 지지자가 마하티르 총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저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사회안정

시위·소요 사태가 드물고 사회적 안정성이 높으나, 노동자의 권리는 취약한 편

- 말레이시아에서 시위 발생 빈도는 매우 낮으며, 폭력적인 소요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대부분의 시위는 야당 측이 정부의 종교·민족 정책을 문제삼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지정된 광장이나 경기장에서 비폭력적으로 진행됨.
- 엄격한 노동 규제로 노조의 동정파업과 불법 해고 관련 분쟁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파업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매우 엄격하여 합법적인 파업이 거의 불가능함. 또한 노동부가 근거 없이 노조 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 등 노조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자에 의한 파업이나 시위는 매우 드물게 발생함. 말레이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5.8%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

- 2023년 5월 Moody's는 ESG 요소가 말레이시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라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세계적인 화석연료 사용 축소 움직임에 따라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원유 관련 수입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광업, 벌목 및 팜유 농장 확장에 따른 산림 파괴에도 노출되어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양질의 교육, 주택, 보건 및 기본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고 소득 하위 4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상당 부분 상쇄하여 사회(Social)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견고한 행정 및 입법 제도, 신뢰할 수 있는 법치주의, 오랜 기간 지속된 효율적인 거시경제 정책 등에 기반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역시장 확대

- 비동맹 중립정책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구하며 일본, 인도, 파키스탄 등 총 7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ASEAN 차원의 다자간 FTA에도 가입하였으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OIC(이슬람협력기구, 총 57개국)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대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TPP의 대안으로 일본을 주축으로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와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출범된 바 있음.
 - * 참여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 ** 참여국: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0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동맹체계의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공식 제안하였으며, 2023년 9월 기준 총 14개국(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이 IPEF에 가입하여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 인근의 남중국해 루코니아 암초 지대를 중심으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2020년 5월 말레이시아 감사원은 2016~19년 중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군 선박이 총 89차례에 걸쳐 남중국해의 말레이시아 영해를 침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2021년 6월에는 중국 군용기 16대가 동말레이시아 인근 영공을 편대 비행하는 사태가 발생함.
- 다만,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이며, 2023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남중국해 해상 분쟁과 관련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남중국해 분쟁 관련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음.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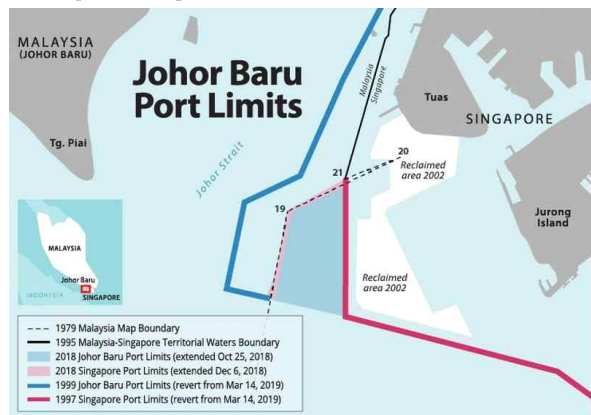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암발라트 해역 등에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해당 분쟁 해역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양국은 모두 암발라트 해역에 해군을 파견하였음. 양국 모두 암발라트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원 탐사를 지속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2023년 6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말라카(Malacca) 해협과 술라웨시(Sulawesi) 해협 일부의 영해 경계 협상에 서명하였으나, 암발라트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200해리 떨어진 다른 지역은 여전히 분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양국 사이에 위치한 조호르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지속해왔으며,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조호르 해협 인근 조호르바루 항의 포트 리미트(Port Limit, 선박 운항 등 관할권 행사 구역)를 일방적으로 확장하자 싱가포르는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근 투아스 항의 포트 리미트를 확장하는 조치로 대응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바 있으나,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림 10] 암발라트 해역 분쟁지역 지도



자료: Jakarta Post

[그림 11] 조호르 해협 분쟁지역 지도



자료: Malay Mail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하며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2022년 3월 말 기준 말레이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 지원액은 69.5억 달러*(단기 23.2억 달러, 중장기 46.3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0.6억 달러, 연체율 0.9%)으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 일본(28.7억 달러), 캐나다(9.4억 달러), 한국(7.4억 달러) 등 19개 ECA 잔액 보유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3.06)	2등급(2022.06)
Moody's	A3 (2016.01)	A3 (2013.11)
Fitch	BBB+ (2020.12)	A- (2020.04)

양호한 투자적격등급을 유지 중이나 재정건전성 부담은 지속 중

- 말레이시아는 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입 기반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 이력,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건전한 금융 부문과 신뢰성 있는 규제 등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양호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수년째 유지해 왔음.
- Fitch는 2020년 4월 말레이시아에 대한 등급 및 전망을 'A-; negative(부정적)'로 조정 후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고 이미 높은 수준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대응 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의 평가등급을 종전 A-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 현재 'BBB+; stable(안정적)'을 유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원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20년 넘게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023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외부수요 약화 등이 이어져 전년 대비 낮아진 4.0%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제10대 총리직에 취임(임기: 2023~27년)하였으며, 그동안 부패 스캔들 등으로 혼란해진 정치 상황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됨.
- 정부가 공공부채 비율을 GDP 대비 65%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확대로 공공부채 부담이 다소 높은 편임. 한편, 2022년 기준 총외채잔액의 65% 이상이 중장기 외채로 만기구조가 안정적이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각각 69.2%, D.S.R 9.7%으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도 양호한 편임.